

찬우물세상을 향한 야인의 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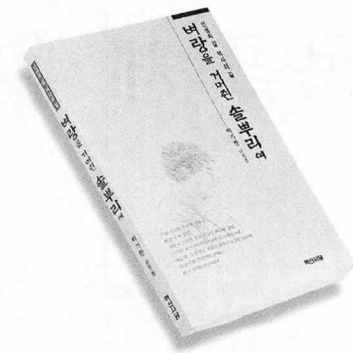
《벼랑을 거머쥔 솔뿌리여》 펴낸 백기완씨

지난 8일 일간지의 '생활광고' 난에 한 노점상이 낸 쪽광고가 실렸다. 《벼랑을 거머쥔 솔뿌리여》(백산서당)란 책이 나온 줄도 모른다는 어느 손님의 말에 너무나 안타까워 광고를 낸다고 밝힌 그는 사람들에게 책방으로 달려갈 것을 권했다. 무엇이 이 노동자에게 가난한 주머니를 털게 했을까. 아마도 사람에 대한 희망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일 게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66)은 요즘 달라진 세상인심을 쓰라리게 확인한다. 군사독재시절 네번이나 폐쇄당하면서 31년 동안 버텨온 연구소가 문을 닫을 처지에 몰렸다.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버린 것이다. 그는 이 책을 펴내기 전에 1만권 예매라는 초유의 운동을 벌였다. 연구소 재건을 위해서다.

"세상 사람들은 때려서 우는 중, 바람에 우는 종소리만 들어요. 하지만 나처럼 스스로 우는 종도 있지요. 이 소리는 잘 들릴 못해요. 예전과 다름없이 일하는 데도 잘 모릅니다. 제도언론에 글 한줄 실리지 않아요. 어쩌면 예전보다 더 교묘하게 탄압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는 오직 통일을 위해 살아온 한 들사람(야인)의 고단한 생애와 처절한 외침, 그리고 민중의 삶과 함께 했던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제 본성을 잃어버린 닭이 스스로를 해방시켜 자신의 주인이 된 '질라라비' 이야기, 빗줄기 속에서 비발이(우산)를 건네주며 사라지던 어린



소녀의 기억, 군사독재시절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모진 고문과 수난 등이 때론 애잔하고 때론 웅장한 가락으로 흐른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은 인생관·가치관·역사관이 일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패배주의를 딛고 일어설 전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이 책은 바로 허무주의의 잘못된 구조를 깨뜨리려는 몸부림입니다."

얼마 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울릉도 여행을 할 때, 백소장은 먼발치에서 북한땅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다. 살아 있다면 지금은 101살이 됐을 고향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다는 회한 때문이었다. 한평생 통일운동에 헌신해온 그가 150만원이 없어서 북한땅을 밟지 못하는 역설은 또 하나의 비극일지 모른다.

"저는 인륜명예의 위기를 넘어설 말뚝(화두)으로 찬우물 세상을 띄워봅니다. 찬우물은 10년 가뭄에도 끄떡없이 물이 차오르듯 풍요사상입니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 없이 물갈이하는 변혁사상이자 청정사상입니다.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산다는 뜻의 '노나메기' 세상을 꿈꾸는 평등사상이지요."

한평생 야인으로서 백기완을 이끌어온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긴장'이라고 표현한다. 역사와 민중을 향한 역동적 긴장이 본체다. 그 긴장을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 그는 또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

"앞으로 '지성의 유격전'을 펼쳐보고 싶어요. 민족의 양심을 일깨울 '민족문화대학'을 설립해 교양강좌를 여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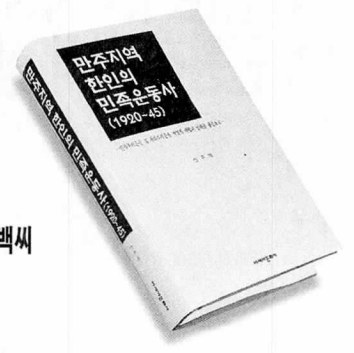
백발의 그가 요즘 꾸는 꿈이지만, 그보다 먼저 연구소를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이 책의 수익금을 모두 털어 오는 7월 2일 조출한 재발족식을 연다.

찬우물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다.

—박천홍 기자

전통적 구분법 뛰어넘은 만주 항일운동사 해석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펴낸 신주백씨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노래가사처럼 만주는 우리 민족이 인식하는 경계의 가장자리에 자리잡았다. 우리에게 만주는 나라 잃은 설움에 남부여대하고 찾아간 곳이고 동시에 일제에 가장 활발한 무장투쟁을 벌이며 맞섰던 곳이기도 하다.

박사논문을 수정보완한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아세아문화사)는 3·1운동 직후부터 만주에서 벌어졌던 항일투쟁 민족운동의 역사를 뒤쫓았다. 한국·북한·일본·중국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분단상황 속에 외면되던 만주지역을 다뤄 그 의의가 크다.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사전작업으로 만주에 접근한 연구와는 출발이 다릅니다. 저는 전체 항일투쟁의 지형 속에서 만주지역이 차지하는 부분을 천착했습니다. 최근 발견한 일본 외무성 자료 등을 토대로 박사논문에 시기상 앞뒤 5년씩을 덧붙여 만주지역 항일투쟁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감하려 했지요."

신주백씨(37)가 만주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1988년 겨울방학 내내 국 토통일원의 북한자료실을 다니면서부터다. 북한의 식민지 시기 연구논문과 책을 읽으면서 항일운동의 실제모습에 대한 학문적 궁금증을 느꼈다. 의문은 1993년 연변대학 민족연구소에서 6개월간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구체화됐다. 1996년 나온 논문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 연구》는 이 작업의 결과물이다.

"우리의 항일투쟁처럼 광범위하게 진행된 경우는 세계사에서 드뭅니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항일투쟁의 특성이 모두 다르죠. 만주리는 지역적 특성은 여기서 비롯합니다. 1909년 체결된 '간도협약'에 의해 한인은 일제와 중국의 이중적인 지배를 받는 동시에 동만지방의 경우 신분적인 보장과 물질적인 안정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이 책에서는 만주를 모두 4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재만한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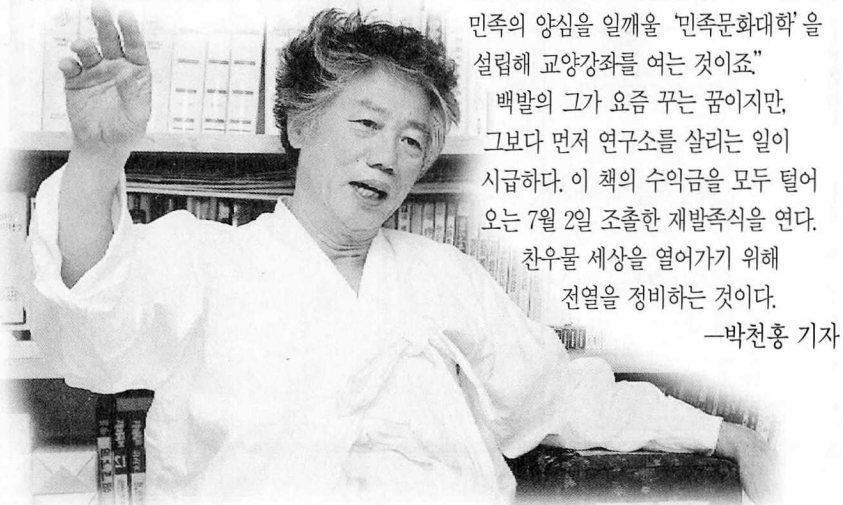
어떻게 형성됐는지 추적했습니다."

신주백씨가 만주지역 항일운동 연구에서 노력한 것은 분단체제의 소산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전통적 구분법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 책은 항일운동세력을 민족운동 우파와 좌파로 정의내리고 양자에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런 전체 하에 그는 3·1운동 직후 북벽주의에 대한 공화주의 승리,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으로의 공화주의 분화,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가 등장하며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의 재분화 등으로 민족운동을 다뤘다.

"개인적으로 자료보이 많았습니다. 중국 자료는 공식 통로로 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개고기'와 '맥주'의 힘이었죠. 미공개된 중국인 회상기라든가 외국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만주성위원회 문헌자료 등이 책에서 처음 공개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간 신주백씨는 《박헌영과 경성그룹》 등 논문과 《일제하신문사설연재자료집》 등의 자료집을 펴낸 바 있다. 민족주의 좌우파 개념으로 국내 사회주의 운동사를 재편하는 문제를 숙제로 남겨둔 그는 당분간 군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정책구조와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이념을 파헤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연수 기자



세상 밖으로 나가 더불어 살자

《애들아, 해외봉사 가자!》 펴낸 박재영씨



청년이여, 할 일 많은 외국으로 나가자. 세계인과 어울려 봉사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외국어도 배우자.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나 어느 곳으로 갈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명확히 정해라.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라.

박재영(44, 경상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해외봉사를 꿈꾸는 청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다. 그는 《애들아, 해외봉사 가자!》(굿 인포메이션)를 통해 해외봉사에 대한 정보와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서도 외국인과 함께 봉사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요즘 해외로 나가려는 청년들을 유혹하는 사설기관이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가 해외봉사에 대한 정보지를 펴낸 이유는 최근 잘못된 정보에 노출된 청년들이 정보만 믿고 허황된 꿈을 꾸거나, 사설업체의 만행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해외봉사 경험자와 인터뷰를 하거나 국제기구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근간으로 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경계력이 늘면서 해외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하며 얻는

경험과는 다릅니다. 해외 봉사활동은 국제감각을 익힐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봉사캠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경험하며 많은 외국 친구들이 일상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나라의 발전이 봉사정신에서 비롯됐음을 느낄 수 있었다.

책은 단순히 해외봉사 활동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해외봉사 활동과 함께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 즉, 국제 취업정보도 제공한다. 박교수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도 해외봉사 활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의 인턴사원은 자국의 지원을 받지만, 면밀히 따지면 봉사하는 셈입니다. 그들 중에 다수는 정식 직원이 됩니다. 즉 인턴사원 몇명이 일하느냐는 곧 국력과도 관계되는 일이지요.”

그는 매년 학생과 함께 국제기구 회의에 참관하고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직원과 인턴사원을 접할 때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곤 했다.

해외 봉사캠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국제NGO에 관한 글을 쓸 계획이다.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오완진 기자

상어의 신화와 오해 벗기기

《상어》 펴낸 최 윤씨



바다 위를 유유히 가르는 삼각 등지느러미의 위협적인 모습. 상어는 그 모습 하나로 사람을 오싹하게 만든다. 하지만 전세계 400여종의 상어 가운데 사람을 공격하는 난폭한 종류는 불과 27종. 상징처럼 돼 있는 등지느러미도 평형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물고기라면 어떤 것이나 갖고 있다. 《상어》(지성사)는 상어에 덧씌워진 오해를 풀어주는, 국내 저자에 의한 최초의 저서다.

“상어를 연구하다보면 연민의 정이 생깁니다. 사실 상어가 인간에게 입히는 해보다 인간이 상어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최윤 교수(39, 군산대 해양생명개발학과)는 상어는 해악을 끼친다는 편견이 무분별한 상어 사냥을 낳고 그 때문에 바다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돼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어 연구는 어류학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시작됐고 책을 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상어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채집과 보관입니다. 또 상어가 나타나는 전국 해안을 돌아다녀야 하고 박제 등에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 어려움도 큼니다.”

5년의 각고 끝에 완성한 이 책에는 일제시대 후 진전을 보지 못한 연구의 성과가 집약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상어 종류는 일본인 연구자가 최종 정리한 36종 외에 4종이 추가돼 40종이 됐고, 구약성서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다는 물고기는 위를 뒤집어 입 밖으로 내놓곤 하는 고래상어가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재미있다.

“상어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연골로 돼 있고, 아가미구멍이 5~7개 정도로 1개인 다른 물고기에 비해 많습니다. 또 비늘이 없는 줄 알지만 방패비늘이 있습니다.”

고래상어 같은 것은 15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몸집이지만 불과 20cm의 스쿠알리올러스자포니카

같은 작은 상어도 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포악한 종류도 물론 있다. 조스에 등장한 백상아리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고기를 남김없이 먹어치운 우아한 자태의 청상아리가 가장 무섭다.

“1백년 전 소설의 청상아리 묘사는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만큼 연구가 잘 돼 있다는 뜻이죠. 기초과학은 문학에도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이 육류에서 어류로 변화하고, 육지의 개발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해양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바탕은 분류학 같은 기초분야다. 조개잡이 등 어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서해안 백상아리의 등장도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파발생장치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인색한 편이다.

“지금까지 25종 정도 모아놓은 상어 표본을 전시할 박물관도 지었으면 하고, 기초과학에 진력할 수 있는 물질적 지원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나 개척자이고 싶은 최윤 교수는 자신의 책을 계기로 상어 연구자가 많아진다면 생태계 파괴의 척도인, 가자미·넙치처럼 바다에 붙어 사는 저서어류의 생태를 연구하고 싶다. —이현주 기자

